

“김 대장 찾자”…고락 같이했던 산악인들 히말라야로

김홍빈 실종 대책위, 현장지원팀 3명 급파
브로드피크 경험 김미곤 대장·박신영씨 등
23일 출국…구조·수색작업 적극 지원키로

광주시 사고수습 대책위원회(대책위) 조사관들이 히말라야 현장에서 실종된 김홍빈 대장을 찾기 위한 수색과 행정업무 지원에 나선다.
21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전날 밤 광주시청에서 열린 대책위 회의에서 현장 행정지원팀을 구성했다.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수색작업에 필요한 국가, 해외 원정대간 협력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행정지원팀 조사관은 2014년 브로드피드를 완등하는 등 등반 경험이 풍부한 김미곤 대장과 지난 1995년 빙고를 브로드피크 원정대의 일원이었던 박신영(우암산악회 소속)씨와 김홍빈 대장의 송원대 산악부 후배인 장병호씨로 구성됐다. 조사관 3명은 현재 외교부를 통해 현지로 갈 수 있는 긴급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현지에서 구조와 수색 작전을 독려하고 행정적인 업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관들은 이르면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해 25일께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파키스탄으로 가는 직항편이 없고 다른 곳을 경유해서 현지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김홍빈 대장이 원정길에 나설 때의 경로와 같은 것으로, 김 대장의 동선 일정을 그대로 따르면 조사관들은 파키스탄 도착에만 2일이 소요되고 베이스캠프가 있는 콩고르디아까지는 5일이나 6일 가량 시일이 걸려 30일이나 31일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파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져 헬리콥터 등 이동수단이 제공된다면 조사관들의 도착은 훨씬 빨라진다.
원정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관들의 도착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김 대장이 있는 위치 파악이 중요하다. 날씨가 좋지 않아 수색대가 올라가 김 대장을 찾는 건 무리다. 하루빨리 항공 수색이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외교부는 김 대장을 찾기 위해 파키스탄과 중국 당국에 수색 헬기 등 구조대 파견을 요청했으며,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 헬기가 대기 중이다. 하지만 현지 기상 상황이 나빠 구조 헬기를 아직 띄울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색팀도 현재 베이스캠프에서 대기 중이다.
김홍빈 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후 하산길에 사고로 실종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폭염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광주 광산구선별진료소에 의료진과 검사자들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얼음이 놓여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김홍빈 대장 가파른 절벽에서 탈출위해 사투

중국령 쪽으로 우회로 찾던 중 실족 추정
무전기 방전…캠프 연결 안돼 한국에 위성전화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좌 완등에 성공한 ‘열 손가락 없는 산악인’ 김홍빈(57) 대장의 실종 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지났다. 파키스탄 현지의 곳은 기상 여건으로 인해 김 대장이 정확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다. 각종 추측과 설이 나돌고 있을 뿐 정확한 사고 경위도 파악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까지 광주시 사고수습대책위가 밝힌 조난 개요와 현지 원정대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김 대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오후 4시 58분 히말라야에서 12번째로 높은 브로드피크(8047m) 정상에 올라섰다.
앞서 오전 11시 30분 제4캠프(7200m)에서 정독채 대원과 정하영 KBS 촬영감독, 고소포터들이 함께 정상을 향했지만 정 감독은 7700m에서, 정독채 대원은 8000m에서 체력 고갈로 제4캠프에 먼저 복귀했다.
홀로 하산하던 김 대장은 19일 새벽 0시께 능선의 마지막 구간인 콜(col: 봉우리 사이의 움푹 들어간 안부) 부근 7900m 지점에서 러시아 원정대원이 고정 로프를 몸에 건 채 지체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다. 이 때문에 하산길이 막히자 우회로를 찾던 김 대장은 중국령 쪽으로 길을 잡던 중 실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김 대장은 무전기로 베이스캠프에 구조를 요청했지만 통신 사정과 배터리 방전 등으로 실패하고 밤을 꼬박 지새운 뒤 위성전화를 통해 오전 5시 55분 한국에 있는 후배 산악인과 가까스로 연결된다. 그동안 그는 장비를 김 대장의 손에 꼭 맞게 개조하고 히말라야 기상 상황을 파악해 알려주는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해 왔다.
김 대장은 통화에서 “조난을 당해 밤을 지냈다. 많이 춥다. 주마(등장기) 두 개와 무전기를 보내 달라”며 구조를 요청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김 대장은 중국 쪽 비탈면 30m 아래쪽 암릉이나 설벽 턱에 걸려 있었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마를 두 개를 요구한 것도 경사도가 가파른 벽을 탈출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는 게 산악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 대장의 연락을 받는 한국의 후배 산악인은 곧장 브로드피크 베이스캠프로 연락했고, 대원들이 러시아 원정대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주마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조에 나선 러시아 원정대는 오전 11시께 김 대장을 발견한다. 당시 김



대장은 대화가 가능하고 물을 마시는 등 의식이 또렷했다고 한다. 두 시간가량 구조 활동이 이어진 오후 1시 42분께, 김 대장은 러시아 원정대에 의해 약 15m 가량 끌어올려졌다. 그 이후 전달받은 주마를 이용해 스스로 오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구조대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파키스탄 육군 항공구조대는 김 대장 구조를 위해 헬기 등을 띄울 준비를 마쳤으나, 기상 상황이 나빠 아직 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백신 접종률 전국 첫 40% 달성

누적인원 75만명…화순 등 10개 시·군 50% 넘겨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45일 만에 전남도내 1차 접종 누적인원이 75만명으로, 접종률 40%를 넘겼다.
전남도는 21일 “22개 시·군 가운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10개 시·군이 접종률 50%를 넘기는 등 접종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22개 시·군 접종센터 일제 개소, 어르신 접종 셔틀버스 운영, 보건소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접종 독려 등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접종 완료자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제외, 경로시설 및 복지시설 이용 가능 등 혜택도 접종률 제고에 한몫했다.
전남도는 1~2분기 접종을 통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보건의료시설 관계자 등 도민 75만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 3분기까지 도민 150만 명 접종, 접종률 81%를 목표로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현재 50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진행 중이다. ▲55~59세(62~66년생)는 12일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50~54세(67~71년생)는 21일 오후 8시부터 24일 오후 6시까지 백신접종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이나 지역콜센터(120)에 예약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서도 돌파감염…1차 접종 후 감염 61명

광주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2주 이후 확진 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사례가 나왔다.
1차 접종 후 감염사례까지 합하면 6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게 방역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지난 4월 이후 이날까지 백신 접종 후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이

중 1차 접종 후 확진자는 56명, 2차 접종 후는 5명이다.
백신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49명(1차 47명, 2차 2명), 화이자 9명(1차 7명, 2차 2명), 모더나 1명(2차 1명), 얀센 2명 등이다. 2차 접종 후 확진자 5명 중 2명은 해외유입, 2명은 2차 접종 후 14일 이내로 확인돼 정부가 인정한 공식 돌파감염은 1명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임아, 단독섬

삽니다. 010-6837-4700

금매물과
경매물건에

투자

하실 분. 010-3605-5000

장성 토지 (매매 분양)	상가매매 (상무지구)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 200, 500, 1800)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010-6670-9800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 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6층 평수 80평 매가 4억5천(용 2억6천) ● 7층 평수 60평 매가 2억 3천 (용 9천) (사무실 리모델링함,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중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양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신

웅

은사님을 찾습니다

현재 75세 정도이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신
양송자 선생님을
찾습니다.
010-9989-7465
기 도 희

산행안내

7월25일(일)
▲광주KJ산악회 7월25일(일) 강
원도 동해, 삼척시&40년만에 개
방, 한국의장가계, 두타산(청옥
산)협곡마천루, 벚꽃빛지무릉계
곡 산행, 염주체육관 05:00, 동아
병원 05:05, 롯데백화점 05:10,
광주역 05:15, 문예후문 05:25,
비엔누차장 05:30 * 다음카페
광주KJ산악회 ☎ 010 7794 6920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651-1833
• 봉 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윤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